

CJ제일제당

Open Communication Day 실시



소통은 아주 작은 조직부터 거대한 글로벌 기업까지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 있어 구성원들간의 상호 응집력을 높이고 근로의욕, 협동심, 직업만족을 높이며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실현된다.

이런 가운데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는 지난 10월 1일 Open Communication Day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 CJ사료 임직원들은 축산현장의 고객의 트렌드와 니즈를 영업과 스텝부서간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통해 각종 현안을 공유했다.

박호인 사료BU장은 "원료수출국의 수출금지 조치, 국제곡물가 상승 등 어려운 축산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료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체질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보여준 임직원들이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한다면 한다는 마인드셋이 온전하게 뿌리내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뛰어넘는 실행력을 주문했다.

(주)트루라이프

닭의 비만 잡기 나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축산전문가들이 꼽는 양계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 골칫거리는 바로 닭의 비만(지방계)이다.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이러한 닭

의 비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농가와 관련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난 10월 13일 전했다.

이는 가을철에 특히 늘어나는 사료섭취량이 닭의 영양소 요구량에 비해 불필요한 과도섭취 및 사료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비만 닭은 품질 및 산란율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다. 과도한 섭취량 증가는 지방계와 스트레스 유발과 동시에 심할 경우 면역기능까지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져 농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루라이프 이정우 FC(Farm Consultant)는 가을철 닭의 비만을 잡기 위해서는 "계군별 닭의 섭취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며,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기록관리가 필수 선행되어야 한다"고 농장에 당부했다.

이율러 "닭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양관리, 영양관리, 방역관리, 질병관리가 한데 어

우려진 통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명의 전문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주)트루라이프 컨설팅 문의는 유선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농장컨설팅 상담문의 : (032)527-6913~4

## 캠미팅 및 트래킹 실시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는 지난 10월 15일~16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에서 캠미팅 및 트래킹을 실시했다.

이번 캠미팅은 서부사료, 트루라이프 및 관계사 GMG종돈, 웨스턴 레포피아, 웨스턴 사관학원(이하 서부그룹) 전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부그룹 중장기 미션·비전 공유와 창의적인 미래상을 만들고 단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장소, 직급 및 직함을 떠나 맥주나 음료 등을 마시며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간 벽을 허물면서 해결안을 찾는 독특한 회의방식인 일명 ‘캠미팅(Can Meeting)’으로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첫날 일정은 ▲사전행사 ▲조별 미션수행 ▲단합의 장으로 이뤄졌는데, 7개 분임조가 그룹사 중장기 비전 이미지를 그리고 공유하는 ‘비전(Vision) 그리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서부그룹 CF 제작’ 미션을 수행하는 등 시종일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CF 제작에 본부장 및 사장 등 임원진 포함 전 직원이 CF모델로 출연, 망가짐도 서슴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컨설팅본부 최준영 신입사원은 “다같이 서부그룹의 미래를 이미지화하고 구체화하는 등 비전과 미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더 의미가 깊었다”며 “전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타 부서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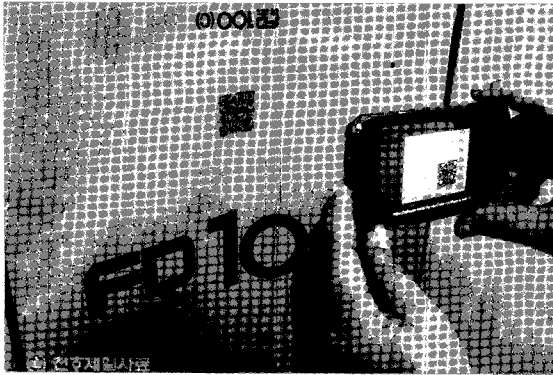
다음날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며 임진강변을 걷는 트래킹으로 마무리했는데, 서부그룹 전 구성원은 캠미팅을 통해 얻어진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도 적용하는 등 비전 실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 천하제일사료

### QR코드로 스마트 마케팅 개시

천하제일사료(대표이사 윤하운)가 최근 양돈 신제품 FD(Farm Design, 농장 디자인)와 베이스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사료업계 최초로 QR(Quick Response)코드를 적용해 관심을 받고 있다.

주위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케팅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스마트폰 시장의 열풍에 사료업계



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10월 1일 천하제일에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업계 최초로 QR코드를 적용한 것. 사료업계에도 스마트한 마케팅 전략의 확산이 예견된다.

QR코드는 스마트폰의 바코드인식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바코드다. 하지만 기존의 숫자만 인식하는 바코드와 다르게 문서 인식 바코드라는 것. 이런 문서코드로 개인 명함의 정보는 물론 홈페이지, 동영상 링크 등을 저장해 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천하제일사료는 FD와 베이스 시리즈 지대에 QR코드를 넣어 출시했다. 이 QR코드를 읽으면 천하제일 모바일 웹 페이지로 접속된다. 모바일 웹은 기존 홈페이지와는 달리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최적화 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처음 이 모바일 웹에 접속하면 3개의 버튼으로 신제품 실증과 급여프로그램, 관련 영상, 천하제일 소개영상을 볼 수 있다. 천하제일이 QR코드를 통해 광고와 짧은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수 많은 이야기를 디지털 코드를 통해 풀어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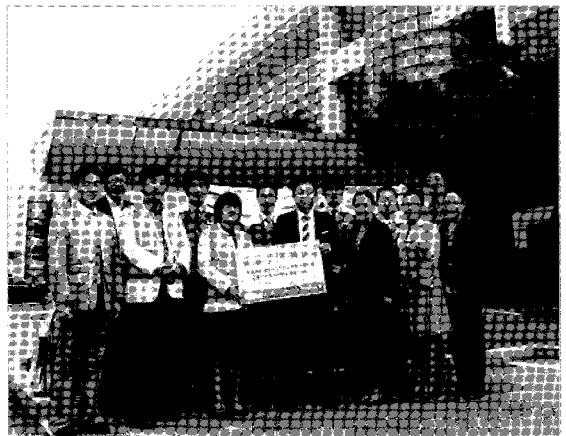
‘농장 디자인’이라는 의미의 FD는 천하제일이 제공하는 농장 컨설팅 시스템을 극대화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고객이 예술로 느껴질

만큼 감동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

천하제일사료는 QR코드 및 스마트폰이 농가에 더욱 확산된다면 모바일 웹 이벤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주)홀랄라

#### ‘지역에서 세계로’ 따뜻한 후원 실천



(주)홀랄라(회장 김병갑)의 따뜻한 후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홀랄라 본사(양지)에서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억 명의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구호, 개발 및 옹호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쌀과 스모크치킨을 후원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10개국에 10년 동안 매년 1개씩의 우물을 지원하기 위한 우물파기사업 후원을 약속했다.

후원행사에 참여한 월드비전 관계자는 “이번에 후원해 주신 쌀과 스모크치킨은 급식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IMF 이후 시작된 급

식사업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만큼 좀더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홀랄라 김병갑 회장은 우물파기사업 후원에 대해 "홀랄라 브랜드의 세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일도 좀더 큰 생각을 갖고 진행해보자는 의미에서 결정하게 됐다"며 "월드비전의 우물파기사업 후원을 통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홀랄라는 용인지역 내 위치한 뇌병변장애를 지닌 아동들을 위한 '요한의 집'과 '용인시장 애인종합복지관'에도 각각 쌀과 스모크치킨을 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에도 적극 동참했다.

## 한국섬벵판매(주)

### 사무실 이전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인 한국섬벵판매(주)(대표이사 김달중)는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한국섬벵판매(주)는 지난 10월 1일 한국섬벵(주)에서 제품 판매 부분을 위해 분할된 회사이다.

■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3  
판교 세븐벤처밸리2 이랜텍동 802호

■ 전화 : (031)705-6464

■ 팩스 : (031)705-4466

## 청주지법 보조금 편취 단체대표 고액벌금형 7차례 총 7천400만원 보조금 편취

배나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내고 양계농가들이 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영농단체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양계협회 회장 이모(57)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불리하게 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단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편취한 보조금이 특화사업에 전부 사용됐고 판결선고 이후 지자체가 피해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점을 지적한 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른 사건과 균형이 맞지 않고 징역의 실행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는 점에서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이씨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을 편취한 양계농가 농민 21명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 대표 3명에게도 각각 벌금 90만~1천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무항생제 양계에 필요한 '면역증진물질'을 매입하면서 배나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충북 청원군에 제출해 7차례에 걸쳐 총 7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고 양계농가들이 총 1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청주-연합뉴스